



지난 3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충청지역본부가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로 승격됐다.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던 연구·지원 기능을 합쳐 3대 중점 R&D 분야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스마트공장 생산자동화 및 제조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의 역할과 책임감이 막중한 지금,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김홍석 소장으로부터 포부를 들어보았다.

김홍석 소장에게 듣는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의 새로운 도전

소통, 연결, 변화를 통해 제조혁신의 새 장을 열다

Q. 충청지역본부가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로 승격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충청지역본부가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로 승격됨에 있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연구소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1997년 본원이 천안으로 이전했을 당시에도 함께 했는데, 이후 주로 로봇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천안을 떠나 있다가 약 15년 만에 돌아왔으니 더욱 잘 해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생기원 중점 연구영역 중 생산시스템 분야의 연구거점인 우리 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정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의 역할도 크게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라는 생기원 본연의 임무와 제조혁신이라는 새로운 미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는 크게 청정공정소재, 에너지시스템, 생산시스템 세 개의 연구 분야와, 7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청정공정소재 분야는 IT융합소재그룹과 그린공정소재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에너지시스템 분야는 열유체시스템그룹과 고온에너지시스템그룹으로, 생산시스템 분야는 생산시스템그룹과 의료복지그룹, 스마트제조기술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분야별, 그룹별로 견고한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연구원들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7개의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개인별 과제까지 합한다면 모두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